

차례상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추석 물가 잡는다

계란 지난 7월 7500원→9일 6533원...조기 27%·밤 18% 등 하락
16대 성수품 2주 동안 11만5000t 공급...13대 품목 가격 내림세
대형마트, 추석기간 쌀 30% 할인행사...농축수산물 할인권 증정도

추석 명절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17대 성수품 가운데 13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 말에 비해 내린 것으로 당국이 파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이석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 '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지난달 26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수립·운영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6

대 성수품(쌀 제외) 공급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집중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가지이다.
16대 성수품은 올해 3주 동안 비축·계약물량을 활용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1.4배 규모로 공급된다. 지난해 대책 때는 2주 동안 평상시보다 1.3배 공급했다.
지난 9일 기준 16대 성수품은 2주 동안 11만

5000t 공급되며 당초 누적 공급계획인 10만1000t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 중 13개 가격은 하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특별 관리 중인 계란 가격은 지난 7월 하순 7500원대였지만 이달 9일 기준 6533원으로, 12.9%(-967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무(-9.1%), 닭고기(-5.2%), 밤(-18.7%), 갈치(-11.6%), 조기(-27.1%)는 지난해 말에 비해 가격이 5% 이상 하락했고,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배추 가격은 전년보다 49.0%,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기상 악화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물량 1만을 즉시 방출할 준비를 했다. 계란은 일 300만개 규모 수입단 공급을 지속

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재입식을 조만간 마무리한다.
주요 수산물인 명태의 경우 정부 비축 6945t을 전량 방출하고 명절 일주일 전에는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명태 가격은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7.9% 높은 수준이다.
명절 수요와 국민지원금 소비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축산물은 도축과 출하 집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도축 물량은 소 8만8000마리, 돼지 141만5000마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일 기준 소는 계획대비 37.1% 초과한 1만4536t, 돼지는 12.0% 초과한 3만8463t을 공급했다.
정부는 농가가 부담하는 소고기 도축수수료 15만원을 추석 직전인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명절 전 소고기 공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당초 전망한 도축 1만5000마리 규모에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 2만2000마리 수준까지 약 47%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고기 공급량 증가율은 약 7-8%이 될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이달 셋째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수입을 평년 대비 5% 확대한다. 또 조기 출하와 주말 도축 등을 늘린다.
지난해보다 가격이 14% 가량 오른 쌀은 기상악화가 겹쳐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협력해 추석 기간 동안 쌀 10~30%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외 농축수산물 할인권 지급(할인율 20~30%), 한우·한돈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할인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행사(20~30%) 등 체감가격 안정노력도 추석 전까지 지속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섬유역 상생협력위, 정수장 위생관리 신기술 개발 등 현안 논의

먹는물 시설 관리방안 강구도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송촌보와 영산강보관리단에서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 3차 정기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발족식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으며,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댐 하류 수해피해 원인 조사 결과 보고를 듣고 정수장 위생관리 신기술 개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친환경 시설 '에코필터링' 구축 현장을 찾아 먹는물 시설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강구했다.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 관련 상생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학계·언론·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출신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뒤 영산강·섬진강 유역 통합 물관리 실현과 현안 갈등 해소 활동을 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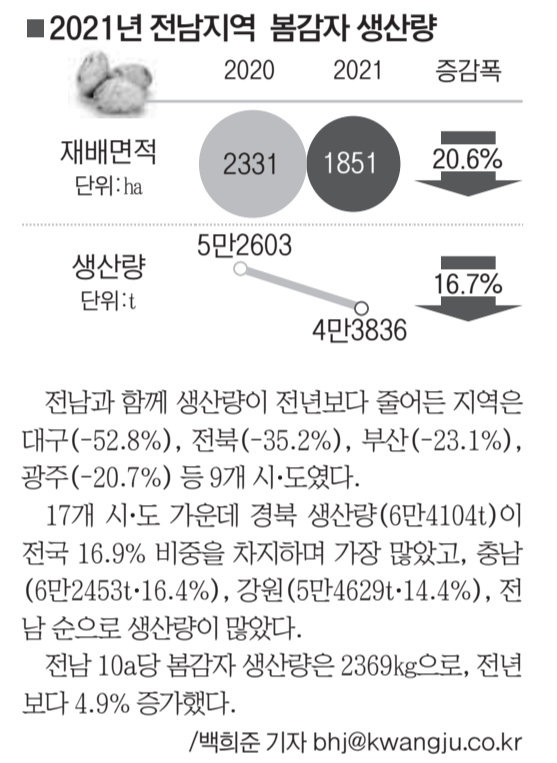
지난 9일 광주시 남구 송촌보에서 열린 '영·섬유역 상생협력위원회 3차 정기 회의'에 박재현(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치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유역 내 물 관리와 현안들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해 전남 봄감자 생산량 16.7% 감소

4만3836t...4년만에 가장 적어

올해 전남지역 봄감자 생산량이 전년보다 16.7% 줄어든 4만3836t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봄감자 생산량은 37만9672t으로, 전년(37만6349t)보다 0.9%(3323t) 증가했다.
올해는 봄감자 재배면적이 1만4266ha로 1년 전보다 12.7% 줄었지만 생산량은 되레 늘었다.
전남 생산량은 전년(5만2603t)보다 16.7%(-8768t) 감소한 4만3836t으로, 전국의 11.5%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봄감자 생산량은 지난 2017년(4만2156t)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남 재배면적은 지난해 2331ha에서 올해 1851ha로, 20.6%나 감소했다.
전남지역 봄감자 재배면적은 지난 2017년 1845ha에서 2018년 2062ha, 2019년 2273ha, 2020년 2331ha 등 3년 연속 증가해왔다.



농협 광주·전남본부, 소외계층 아동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전달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역본부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농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 전남노동조합은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난 9일 전남도청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농협 측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전남 방역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국과 자매결연 장애인 시설 아동들에게 농협 목우촌 햄 세트를 지원했다.
이 물품은 장성, 강진, 장흥지역 장애인 시설에 전달된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가정·소외계층에 우리 농축산물을 나눔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추석 명절을 함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안종팔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삶,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노동조합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NH농협 노동조합 광주지부와 농협 광주지역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5300만원 상당 가정간편식 꾸러미와 농축산물 선물세트를

를 광주시교육청에 전했다.
전달식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강형구 농협 광주지역본부장,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한재규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소외계층 학생 480명에게 전달된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어린이 잡지 '월간 어린이 동산'을 전했다. 광주영업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잡지 6000부를 후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석 장보기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보세요"

농협은행 전남본부, 착한소비 운동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최근 목포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착한소비 운동'을 벌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방역물품은 ▲마스크 1만3500매 ▲친환경 손소독제 2700개다.
목포자유시장, 동부시장, 청호시장 등 목포 지역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이날 소상공인을 위한 '찾

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다. 소상공인 전용 여신상품·사업자금 운용을 위한 맞춤형 자산상담도 받았다.
농협은행 직원들은 친체된 전통시장 소비를 살리기 위해 추석맞이 용품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착한소비 운동'도 펼쳤다.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은 "농협 창립 60주년과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대지 515㎡(구 156형)
지하 1층, 지상 9층
46㎡(구 14형), 64호실
매매 - 협의
-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대지 582㎡(구 176형)
지하 1층, 지상 10층
49㎡(구 15형), 72호실
매매 - 협의

중개환영. 010-3605-5000

남구 덕남동 임야

- ▶ 661㎡(구. 200형), 지분 매매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개발 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매 - 6,000만원
- 문의. 010-3605-5000